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요. 굉장히 좋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대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학으로 가는 게 무슨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학이 있겠죠.

그 대학으로 가는 길을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강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명칭을 지어봤는데요.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환경과 고등학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좀 시간이 지나서 느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점과 훨씬
더 많은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렇긴 한데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요. 희생한 만큼 돌아오는 게
또 이 입시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문제만 풀고

유명한 강의 듣고 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물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형,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길이요. 다르게 적용하면요.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점들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학부모님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학부모님들은 제가 밖에서 만나 보면 일단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입시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기본적인 입시는 쉽습니다. 심플 그 자체예요. 심플하고 대신에
이제 대학별로 적용되는 게 살짝살짝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쓰는 명칭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르고 이 반영되는 방식이 조금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느끼시는데 기본적인 어떤 중심은요. 똑같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위주로 보고요. 물론 성적도

들어갑니다. 면접이라든가 각종 서류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축은 내신이에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글쓰기 실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수능 위주로 갑니다. 이런 기본적인
축은요.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학마다 정해놓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약간 다릅니다. 이 약간 약간 다른 걸
가지고 너무 복잡해요라고 하는 건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맛집을 가더라도 정형화된 맛집만 가는 건
아니죠. 살짝살짝 다릅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서도요. 맛이

좀 달라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 자체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딱
정해놓은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

카드 6장과 정시 카드 3장을 고3 좀 들어가야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학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고1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복잡한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축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목표대로 설정한
대로 쭉 가시기만 하면 구체적인 것들은 고3 가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전형이 아니에요. 아셨죠? 저와 함께
그리고 강남인강과 함께 대학으로 가는 길 청취하시고요.

하나하나 세팅하시고 설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어왔을 때 마음먹었었던 대학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요. 전형별 특징입니다. 전형별 특징은 제가
보통 이제 입시 강의를 할 때 매번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첫 상담을 하는데 학종이 뭐예요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언론. 특히 SKY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학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형별 특징,

교과와 학종과 논술과 정시의 차이점을요. 명쾌하고 단순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걸 딱 생각을 할 때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게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녀석들을요.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수시와

정시를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적인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수시가 70이고 정시가

30이에요. 정시가 너무 적습니다. 수시를 좀 줄여야 되고요.
정시를 좀 늘려야 돼요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은데요. 일단

수시와 정시는 서로 경쟁할 녀석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와 정시는요. 간단해요. 접수 기간에 따라 나눈

겁니다. 수능 전에, 수능을 보기 전에 접수를 하면 수시라고
해요. 그리고 수능을 본 다음에 대학교에 접수를 하는 거를

정시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단순하게 언제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을 갈라놓은 것뿐입니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준 자체가 뭐예요? 어떤 평가 방법이
아니라 시기의 차이라는 겁니다. 접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를 나눠봤는데 이거를 70:30이다. 나눠놓은 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시는요. 총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정시는요. 가, 나, 다군 해서 3장의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몇 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카드에 포함이 안 돼서
최대 수시는 7장, 정시도 마찬가지로 4장까지 쓸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수시는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정시는 3장의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총 9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이 9장의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수시는 70%를 뽑고요. 정시는 30%를 뽑습니다.
언뜻 보면 수시가 굉장히 많아요.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 100에 가까운 정시는 30%밖에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수능
세대. 저와 같은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세대는요. 수능을 많이

봤습니다. 학력고사는 이제 없어요. 수능 세대인데 수능이 보통
27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수능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진

시험임은 틀림없습니다. 평가 자체, 평가 도구로서의 가치는요.
존재해요. 그런데 왜 대학들이 생각해봅시다. 왜 그렇게 좋은

평가 도구, 사회에서 평가하는 공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하는 수능이라고 하는 전형. 그리고 수능 자체가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평가하기도 쉽고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수능에 대해서

대학교는 왜 30%밖에 뽑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시라고 하는 건 뒤에

뽑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뽑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앞에
뽑죠. 수시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한정된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들이 생각해놓은 이런 정원들이 빠져나가요. 중복
합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우다 메우다 결국에는 남는

인원이 생깁니다. 보통 이걸 수시 이월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뒤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빵꾸가 나지 않습니다. 정시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중복 합격이

있어요. 하나의 대학만 붙는 건 아닙니다. 두세 개 대학 붙은
아이들이 상위 대학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밑에 대학들은요.

정원을 못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 정시라고 하는 카드 활용이 굉장히 힘들어요.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바로
오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수능이

굉장히 좋은 시험이긴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죠? 100%
객관식입니다. 물론 수학에 주관식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거의 90% 이상의 평가가 오지선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처럼 사회 자체가 복잡하지도 않고요. 변화의

속도가 적은 그런 사회라면 충분히 오지선다형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은 어떻습니까? 객관식만

봅니까? 아니에요. 시험에 서술형, 서논술형의 평가가 올해부터
50% 이상 출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수행평가까지 합하면

학교 내에서의 평가에서 객관식, 선택형이라고 녀석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채 30%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학교

내에서의 평가도요. 객관식, 선택형 평가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당연히 객관식으로 뽑아야 되는 선택형 점수로 뽑아야

되는 대학 입시 역시 30% 정도밖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단순하게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교과도 점수로 평가하죠. 내신
성적도요. 내신과 수능 성적만으로는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입사를 보자고요. 회사를
뽑을 때 그 신입사원들을 단순하게 학점만으로 뽑습니까? 토익

점수로만 뽑아요? 그렇지 않죠. 서류 전형 통과하고 일종의
학종으로 뽑죠. 서로 전형 통과하고 면접도 보고 합숙 훈련

해서 최종적으로 인재를 뽑습니다. 이게 기업의 인재 선발
방식이에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뽑아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대학에게 이런 인재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학 입시도요. 기업들의 인재 선발 방식을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어떤 독서 능력이라든가 발표

능력이라든가 어떤 탐구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 수시 내에서도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수시와

정시 7:3입니다. 그래도 좀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시는요.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교과와 학종과 논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큰
축으로 보자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논술이라고 하는

3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수시는 이 3개가 더해진 거예요.
3:1 싸움이죠. 3:1 싸움이니까 당연히 비율은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해가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입시는
수시vs정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과와 학종과 논술과 정시의

어떤 경쟁 체제로 보셔야 돼요. 자, 이러한 교과와 학종과
논술과 정시라고 하는 전형 체제가 전국적인 대학에서 봤을 때

과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교과라고 하는 전형을 전국에서는요. 가장 많이

뽑게 됩니다. 42.4%죠. 자, 올해 고3 2020 입시를 보는 학생들
기준으로 뽑아본 건데 전국은 교과의 경우에 42.4%입니다. 학종

대세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학종 전형은요. 전국적으로 보면 24.5%밖에 안 돼요. 어라?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논술 3.5%입니다. 엄청나게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능 정시 19.9%, 20%예요. 이렇게 보면

학종과 정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입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이 교과 내신을 위주로 뽑는 교과 전형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교과가
42.4%네. 나는 내신에 올인해야겠다. 그래서 수능 공부 안 하고

여러 가지 활동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봤을 때 42.4%가 되기
때문에 뭐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학을 만약에 갈 때 선호하는 대학들이 어디에 몰려 있죠?
거의 대부분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자체가

서울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이긴 한데 대학 같은
경우도 일부 포항공대라든가 카이스트,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빼고서는 웬만한 좋은 대학은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선호도도 어디로 가요? 서울에 몰리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분포를요. 전국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서울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뚜껑을

열어봅니다. 인서울에 대해서 전국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양상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교과가요. 무려

5.9%로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학종이요. 확 늘어요. No.1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45.8%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3.5%였었던

논술이요. 생각보다 많죠. 12.4%로 비중이 확 오릅니다. 3배
가까이 뛰어요. 그리고 정시가 전국에 19.9%였는데 인서울에서

비중이 높죠. 27%고요. 얘는 사실상 30%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뒤에 부분에 얘기를 할 건데 정시는요. 수시에서 흡수하지

못했던 인원을 소위 얘기하는 수시 이월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수시 이월되는 인원이 전체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3%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시는 30%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교과는 5.9%, 학종은 무려

45.8%, 논술도 12.4%, 정시도 근 30% 게임이 완전히
확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어떤 기준으로 가야 돼요? 학종과
정시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 역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

내신 신경을 안 써야 될까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학종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신이요. 평가 요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공부는요.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평상시에 독서 생활을 많이 해서 논술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고3에 보게 될 수능 준비도요. 3년에 걸쳐서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3가지 요소를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지만

인서울 입시에서 쓸 카드가 많아집니다. 지금 뭐예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힘들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요. 독서는 뭐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에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이거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인서울 중심으로
일단 제가 이 전형 설명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전형입니다. 바로 내신 중심 거의 이제 교과
중심이라고 하는데 내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뭐라고 나옵니까? 전국
NO1. 수시입니다. 아까 보셨어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No.1입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42.4%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호도가 높은

서울에서는요. 무려 이게 5.9%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고민이 많으냐? 일단 학생부의 어떤

평가 요소를 보면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뽑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교과 100이에요. 교과

100, 내신만으로 뽑겠다는 거죠. 수능최저도 보지 않습니다.
학생부 자체도 보지 않아요. 이 대학에서 뽑은 요소는 뭐예요?

3년 개근 보통 5학기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동안의 내신
성적만으로 뽑겠답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 100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내신의 합격률이, 점수가 굉장히 높겠죠.
높습니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보통 이제

인서울에서 교과 100으로 보는 대학들이 보통 이제 뭘 보게
되느냐? 수능최저가 보통 포함이 됩니다. 소위 우리가 가고 싶은

인서울에 있는 특히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수능최저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최저가 들어가면 보통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4가 되고 이공계 같은 경우는 2개 합
5를 많이 보게 되는데 수능최저가 들어가면 이 교과의

커트라인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대학이 설정해놓은 수능 최저점수를 맞추지 못하면 탈락이죠.

무조건 수능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좋은데 평상시에 학력평가 혹은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은 점점 내신 자체가
이렇게 포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교과 100, 수능최저가

없는 대학은 한양대 같은 경우 보면 거의 1점대 극초반에
이렇게 포진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능최저가 들어가게

되면 1점대 초중반까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수능최저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혹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비교과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비교과는 보통 우리가 학종을 생각하는데 교과에

들은 비교과는 좀 달라요. 비교과는요. 출석이라든가 봉사를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보통 교과 전형을 넣는

인서울에 혹은 수도권 대학에 교과 전형을 치는 학생의
특징은요. 굉장히 성실한 학생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석 무단이 없겠죠. 빠져봤자 아파서

빠지는 겁니다. 봉사, 기본적인 봉사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가 들어가는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100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과 100에 설정된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신이 조금 부족해요.

작년에 점수를 봤을 때 보통 이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전년도 입학 성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살짝

모자라지만 면접 능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 면접으로 살짝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조금 모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번 전혀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교과로 뽑아요. 그다음에 보통 3배수로

뽑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놓지는 않았지만

보통 적성 전형이 있습니다. 고1 같은 경우에 폐지된 전형인데
적성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에 포함된 경우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가 한 40~6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60~40 정도를 적성고사라고 하는 녀석으로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보통 고1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강의가 고1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고1 같은 경우에는 적성이

폐지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적성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고2 혹은 고3이 있다면 적성에 대한 설명이 좀 없다라는
점 조금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적성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학력평가 즉 수능과 비슷한데 굉장히 빠르게 푸는
시험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교시에 국어, 2교시에

수학, 3교시에 영어, 4교시에 탐구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적성고사의 모든

고사를 다 봅니다. 보통 국어, 영어, 수학으로 보는데 학교에
따라서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수학 보는 대학이 달라요.

3개 다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대학마다 다 다른데
이 시험을 2시간이라든지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고 다 풀게

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한 1분당
1문제 정도. 빠른 거 같은 경우에는 한 40초당 1문제 정도를

풀 수 있게끔 문항수를 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적성고사라고 하는데

각 대학별로 약간 조금씩 다르거든요. 적성고사가 좀 궁금한
친구들은 5월 달에 선행학습 평가라고 해서 대학별 고사에 대한

어떤 평가 자료를 대학에서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요. 각 대학이 준비하는 적성고사의 유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포인트는 다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과에서는 역시 학교 내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반영 교과가 다를 수도 있고요. 비중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선생님이 다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담임선생님들이요. 이런 프로그램에 클릭 한번 하면

대학별로 내신이 산출되기도 하고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산출돼서 나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에도요.
그 대학에 맞게끔 내신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궁금한 친구들은요. 자신의 성적을요. 대학교 홈피라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교과
내신은요. 대학마다 반영 교과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전체

교과를 바라보는 보통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정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교과를 선택해줘요. 국어, 영어, 사회.

국어 중의 2개, 영어 중의 2개 이렇게 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2개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오르는 건 뭘까요?

당연히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선택 교과형 내신이 훨씬 더 높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좀 모자란

친구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택 교과가 좀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 비중이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2:4:4라든가 3:3:4로 보통 나뉘는데 이것 역시 이제

프로그램을 깔면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3학년 때 비중이 크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2학년 때, 3학년
때 열심히 하시면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학교별로 지원 가능한 내신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1점대 초반에 많이 이렇게 합격선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울 같은 경우에 약간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2점대 중반까지도 교과 전형에서

합격선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가
가능한 거죠. 커트라인이라든가 평균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운영하는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전년도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전년도 결과를

보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내신, 합격선을 이렇게 가늠해보시면
내가 이런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대학이
좀 편차가 큽니다. 경기도는 워낙 넓다 보니까 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처럼 인서울 대학 수준의 대학도 있지만 조금 이제
지방대 수준의 대학도 많기 때문에 편차가 커요. 그런데 이런

걸 딱 종합해봤을 때 좀 선호도가 있는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2점대에서 3점대 말까지 충분히 합격선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달라요.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8~9등급이 붙을 수 있는 대학도 있고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점대 초반까지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보시면

합격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학처 홈피는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하셔서요. 여러 가지 입학자료 찾아보시고요. 특히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꼭 신청해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이 있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안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강대랑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도 교과 전형이 없죠. 보통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

좋지만 학생부가 좀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뭐도 해줘야 됩니까? 학교생활 자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생부와 관련된 전형은

학종으로 도전하는 게 훨씬 더 폭넓게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특징을 또 보면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요. 충원율은 생각보다 높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도 어떤 경쟁률인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7.56입니다. 이화여대 5.61 그리고 중앙대 11.59, 외대

11.46, 국민대 9.74, 숙명여대 8.11이에요. 보통 이제 한 1점대
후반, 8~9%에서 한 10% 초반대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많아

보이죠? 많은 거 아닙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100:1까지 가요. 인하대 어떤 의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300:1까지도 갑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한 자릿수
대. 거의 한 자릿수잖아요. 한 자릿수라든가 10점대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학생부
교과 말고 수능최저가 걸려 있는, 보통 다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쟁률은 거의 반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걸려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넘은 상태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이 최저를 많이 못 맞습니다.

못 맞다 보니까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고지되는 경쟁률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실질 경쟁률 있죠. 실질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다운된다는 거 감안하셔야 돼요.
충원율은 볼까요? 236%입니다. 거의 2.5바퀴가 돌아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근 1바퀴 돕니다. 중앙대 1바퀴 반 정도
돌죠. 외대 같은 경우에 2바퀴까지 돌고 국민대도 1바퀴 돌고

숙명여대도 1바퀴까지 돌아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왜 경쟁률이 낮죠? 지원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격선 자체가 공지가 되잖아요. 전년도의 입학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쯤 되는 아이들이 넣어요. 전년도

합격선이 뭐 1.8인데 3.0인 학생이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1.8이면 넣어봤자 2점대 정도, 2점대 극초반 아이들이

좀 넣습니다. 수능최저 바라보고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쟁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과의 특성상 중복 합격이

많습니다. 보통 두세 개가 많이 붙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다 보니까 충원율 역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학종도 은근히 충원율이 높아요. 중복 합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중복 합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 보니까 충원율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 1번도 떨어지는 게 논술 전형이에요. 그런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8명 정원을 뽑는다 하면 예비 번호가
8번이다 하더라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8번도 합격이 되는

거죠. 추가 합격으로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가능해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는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거의 교과 같은 경우에는 소신 지원하는 애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안정카드로 많이 써요. 보통 이제 하향

지원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으로는요. 교과 전형을
쓰는 대학에 솔직히 못 갑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못 가요.

심지어 교과 전형과 보통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것과 수능
점수가요. 그 학생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이 더 못 맞아요. 친구들이요. 점수가 낮게
분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도 자기 실력보다 조금 높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신은 어차피 학교마다
똑같아요. 정해져 있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률이 적죠. 적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소신카드로 쓰면 안 돼요.

안정카드로 써야 되고요.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이 대학은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이야.
그런데 이거를 교과 내신으로 쓴다? 그런 전략은 아닌 거죠.

항상 모든 수시카드는요. 모의고사 전형을 정시로 변환을 해서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인데 왜 수시로 씁니까? 그렇죠? 특히 교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합격 유무가 딱 보입니다. 넣으면 붙고

넣으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안정카드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한두 장

정도는요. 안정카드로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넣으면 붙습니다. 붙기 때문에 보통 수시 같은

경우에는 붙어버리면 정시 못 쓰잖아요. 이거까지 감안하셔서요.
교과카드를 써야 됩니다. 경쟁률이 낮아요. 충원율이 높다

보니까 일단 넣을 경우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수능최저가

들어가면 그나마 낮았던 경쟁률도 반 토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내신이 이만큼

부족하다면 이만큼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신 관리를 하셔서요. 기본이죠. 전형의
가장 기반이 교과 전형이에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교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편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안정카드가 있다라는 거 자체는 수시카드를

쓸 때 굉장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카드가 2장 정도 있으면 나머지 4장을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학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논술이라든가 학종으로요.

자신의 실력보다 조금 높은 대학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을 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그 논란의 학종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심지어 이제

올해 전형 자체가 학종이 인서울권에 많다 보니까 학종시대라고
붙이는 언론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근 70%~80%까지 학종으로 뽑아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학종으로 65%까지 뽑습니다. 그리고 인서울권 많은

대학들이 35% 이상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 이상
학종으로 뽑기 때문에 학종을 준비하지 않으면 인서울 대학

입시 전략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인서울 NO1. 수시죠. 서울로 봤을 때

무려, 전체는 아닙니다. 선호도가 높은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45.8% 거의 50%에 육박하는 전형 인원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아요. 전국 같은 경우에는 24.5%로 좀 줄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학종은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간이 길어요. 길고요. 카드를 내는
지원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당연히 서류를 검토해야 될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그냥 공짜로 임용되는 건 아니죠. 다 월급을 주고 활동비를

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려면
대학들이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율이 높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기 때문에 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고려대 같은 경우도 재단이 굉장히
탄탄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특히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대학이 많습니다.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종 전형 운영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학종 전형이 인서울에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서울의

학종 비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 78.5%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고려대 61.5%예요. 경희대 49.2%고요. 성대 47.6%, 건대

46%, 동대 45% 쭉 보시면 이화여대 32%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적게는 1/3서부터 많게는 2/3를 넘어서는 비율을요.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인서울권 대학들이 뽑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전략카드 어떻게 가야 돼요? 기본적인 여러분들

입시 전략 자체는요. 학종을 기반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학종
전형을 내가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내셔야 돼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학종카드를 버리는 거고요. 이런 대학들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대세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의 대학들은
포인트 1번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로 일단 뽑습니다.

보통 서류라고 하면 보통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고2, 3
기준입니다. 학생부와 자소서와 교사 추천서로 보통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런 3가지 서류를 가지고 보통 이제 많은
대학들이 3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3배 정도로 1단계

통과시키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어떤 서류
확인 면접. 학생들이 쓴 자소서라든가 교사 추천서라든가

학생부에 나와 있는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소위 논술

있죠. 논술을 말로 평가하는 면접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좀
수준이 높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30분 전에 주고 나서

그다음에 면접실로 와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학종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1번 방식을 씁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면접과 서류를 동시에 진행을 해요. 서울대 지균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이제 서울대 지균 같은 경우에는 수능최저가
들어가죠. 수능최저가 들어가서 수능최저가 3개 교과 2등급인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수능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수능최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울대 지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교 1~2등이 학교당 2명 추천해서 보는
전형인데 전교 1~2등 정도면 수능 3개가 2등급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수능을 잘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의 내신만 파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전교 1등이 내신이

1등이고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 이런 애들이
보통 쓰다 보니까 지균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의 30% 이상

정도가 수능최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굉장히 낮겠죠. 워낙 이제 경쟁률 자체가 낮은

전형인데 실질적인 경쟁률로 가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이 극초반이 되고 전교권에서 놀아야 됩니다.

극초반이 되고 수능최저가 확보가 되는 친구라면 서울대 지균
특히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교과와 서류인데 보통 교과가 이제
내신이라고 하잖아요. 내신으로 일단 1단계를 뽑아요. 1단계를

뽑고 나서 그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 전체 활동과
자기소개서라든가 증빙서류를 통해서 뽑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운영되는 전형이 뭐냐면 각 대학 전형을 보시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종인데요. 보통 이제 학종을 크게

2개로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과 자기가 스스로 내는 전형 2개가 나뉘어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 1단계를요. 내신으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보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종이긴 한데

거의 교과 쪽에 가까운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세 번째 전형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인데 대표적인 게 한양대요. 이 서류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인 대학이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만 only 봅니다. 자소서도 보지 않아요. 추천서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신도 보지를 않아요. 오직 학생부, 학생부 내에서 내신을 딱 뺀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아주 이상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학생을 뽑는 서류 100 전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전형 자체가 학생부라고 하는 걸 기반을 두고 학생을 뽑습니다. 당연히 학생부 내에는요.

내신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동아리 활동, 교과세특, 종합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다양한 고등학교

5학기 동안 걸쳐서 했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자체를 평가하는 학종이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조금

부족한 친구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자기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게 되고요. 많은 학교에서 학교 체제 자체를 예전에는 수능만 공부했던

체제였는데 이제는요. 학종 체제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학종에 대한 어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학교에서 그동안 도외시됐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는 메인으로 부상했다라는 거. 학교생활 전체가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했던 모든 하나하나 활동 자체가 소중한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대세고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학교가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지금 고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워낙

학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와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

많은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약간 기재사항이 좀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에서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정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약간 엄숙한 분위기로 가는 변화의
폭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부

기재요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 고1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반영이 되었었던 소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수상 같은 거

많이 축소가 되거나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고요. 학생부 글자수는 전체 다죠.

올해부터 1, 2, 3학년 공통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최저를 건 대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 위주로 그러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체제는 솔직히 어울리는 한 쌍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학교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셔야 됩니다. 1학년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수능까지 공부한다? 너무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은
아예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런

의견에 어떤 면에는 수긍하는 면도 있고 그에 비해서
수능최저도 좀 약간 살짝, 세게는 않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 장치를 좀 두면 좀 더 이런 공정성 논란이 좀
해소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흐름 자체는

많은 대학들이 학종에서 수능최저를 다 빼고 있어요. 서울대
지균만 수능최저가 있습니다. 거의 지균이 보통 한 20%가

뽑거든요. 수능 75%가 학종인데 20%가 지균이에요. 수능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최저 전형이 없어요. 연대 올해부터 수능최저가
폐지됐습니다. 한양대 수능최저 원래부터 없었어요. 상당수 많은

대학들 정말 고대라든가 이대. 이런 극소수의 대학을 뺀 나머지
인서울 대학들은요. 대부분 다 수능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극상위 대학교, 일부 대학교를 뺀 대학들을
타겟으로 잡는 친구들은 수능최저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줄겠죠. 그런데 수능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수능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학종에서는요. 수능최저가 삭제되거나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2015개정교육과정 지금

고2서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인데 이 전 과는요. 정말로
학교생활 자체가 천지차이로 바뀝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양과

질도요. 지금 2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고3이 갖고 있는 학생부랑 지금 고1, 2가 갖고 있는 학생부랑

비교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너무, 소위 얘기하는 넘사벽
학생부가 나옵니다. 2015개정교육 자체가 토론과 탐구와 과제와

보고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바꾸지

않으세요. 수능 강의만 하십니다. 당연히 학생부에 적힐 게
없겠죠. 학교는 냅다 보충수업만 시키고 자율학습만 시키고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전형이 학종
전형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개정교육 자체는 수업 자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학종 체제에 바꿔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2015 개정교육과정 수업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고1서부터는요. 정말로 학생부에 많은

내용이 담깁니다. 공부와 상관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자기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수업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부 내용이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죠. SKY캐슬 이게 이전까지 이제 언론과 학부모님들 학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의 벽이 컸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었던 SKY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 학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종에 대한 보완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계속해서 수능 체제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많은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많은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계속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자, 학생부

기재요령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기재분량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많이 축소가 됐는데

1000자가 들어갔었던 자율활동은 500자로 줄어요. 진로도
1000자였거든요. 700자로 줍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아예 빠지죠. 2, 3학년 같은 경우는 500자로 그대로
남게 돼요. 그다음에 종합란 있죠. 종합란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모두 다 1000자에서 500자로 줍니다. 대략적으로 해서
평균 보면 한 1500자~1700자 정도가 축소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기재분량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물론
그동안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들한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활동한 학교라든가 정말로 열심히 학종을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교내대회에서 나가면 상을 받잖아요. 이전까지는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다 받고요. 받았던 모든 상들이 대학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 고1부터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지금 고1부터는요. 상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정작 대입에서 쓸 수 있는 상은요. 학기당 하나로 축소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이 수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학업 역량을

측정하고 전공 적합성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기당 하나로 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대학은요. 몰라요. 자소서에 쓰지 않는 이상.
그런데 자소서 같은 건 철저하게 학생부 기반이거든요.

학생부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수상경력
자체가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 고1서부터는 수상경력 자체의

비중이 엄청나게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겠죠. 과연
내가 수상을 어디까지를 해야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될 수

있는 한 많이 따는 게 좋아요. 어느 수상을 활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굉장히 힘들죠. 기껏해서 탔었던 수많은 상들을요.

하나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허탈감이 클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평가

요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어떤 학생은
영어대회를 대상을 탔습니다. 나가서 그런데 다른 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경시대회 나가서
1등을 하더라도 다른 교과 상 다른 상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렇게 큰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영어대회에서 2등을 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되겠죠. 그런데

학기당 하나씩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등 한 애가 더
좋게 평가될 수도 있잖아요. 2등 한 애들보다. 왜냐하면 2등

한 애 다른 수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대학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수상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평가할 때 굉장히 평가 비중이 대폭
후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을 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타셔야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포인트예요. 소논문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던 거죠. 사교육의

원흉이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받았던 녀석인데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학교 중에는요. 소논문을

학교 내에서 운영 잘하는 학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소논문이요. 모든 학생부 영역에서 기재가 금지가

됩니다. 탐구 보고서라는 영역도요. 아마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좀 크죠. 자율동아리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됩니다. 2, 3학년은 두세 개 돼요.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리고 2, 3학년은
동아리란이 500자입니다. 500자라서 정규동아리랑 자율동아리랑

분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 고1부터는 자율동아리
한해만 가입 가능하고요. 글자수 기재가 30자밖에 안 돼요. 30자

엄청 작거든요. 이거 한 줄밖에 안 돼요. 한 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그 한 줄도 학생이 한 활동을 적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율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를 설명하는 게 30자예요.
그런데 대학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재가 그런 거예요. 학생이

한 활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동아리 설명하고 학교가
한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는 기재를 가장 싫어합니다.

평가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걸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율동아리 즉 고2, 3이죠. 고2, 3이

하고 있는 자율동아리는 정규동아리만큼의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고1이 하는 자율동아리는

정규동아리 만큼의 파워가 있을까요? 없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 학생부 내에서의 기재수가 확 줄었는데요.

그것도 학생이 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동아리 설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이 자율동아리를 한 것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겁니다. 물론 자소서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역시 그 가치, 평가로써의 어떤

비중이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다 후퇴밖에 안 되죠.
글자수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던 수상이 학기당

하나기 때문에 후퇴할 거예요. 소논문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 굉장히 중요한 평가 도구입니다. 썼다고 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논문 자체가 다른 활동과
유기적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파워가 센 거예요.

소논문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논문이 기재가
안 됩니다. 여기에 자율동아리 어느 정도 동아리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자율동아리 후퇴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평가의 폭이 대폭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숫자 항목에 비중을 조금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부에 나오는 숫자가 뭐죠? 성적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의 평가 비중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불행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폭적인
상승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내신의 평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능최저 반영 축소죠. 보통 수능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보통

의대들은 다 있습니다. 의대들은 있고요. 서울대 지균과 고대와
홍대와 이화여대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 정도만 있습니다.

나머지 인서울권 대학들은요. 수능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학 말고 다른 대학을 학종의 메인으로 삼은
친구들은 수능 준비가 굉장히 부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수능 준비는 꼭 하시는 게 유리해요. 자, 그다음에
2015개정교육과정의 영향입니다. 융합교육이죠. 문이과 구분이

없어져죠. 물론 지금 고2도 문이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 자체를 사탐, 탐구를요. 나눠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이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1학년부터는요.
수능에서조차도요. 탐구와 사탐을 구별해서 보지 않습니다.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볼 수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2학년 가서 선택과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완벽하게 자유로

풀 겁니다. 물론 2학년도 자유로 푼 고등학교가 있지만 상당수
많은 고등학교들이 시간표 운영상의 문제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교과를 쪼개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1부터는요.
이제 완벽하게 문이과 통합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활동의 폭이 다양해지고요. 융합적인 활동이 많아집니다.
진로선택교과가 나오는데 진로선택교과가요.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오고 성취평가도 3단계로 줍니다. 기존에 A, B, C,
D, E, 5단계였는데요. 3단계로 줍니다. 물론 성취평가 내용이

대학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로선택교과 자체에서
등급이 표시되지 않아요. 그냥 원점수랑 평균만 나옵니다.

표준편차마저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안 나오니까
대학들이 이 학생의 진로선택교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좀

힘들어하겠죠. 그다음에 기본 수업 자체가 기존에서는 지식을
전달하고 수능 문제 푸는 게 이전까지의 교육이었다라면

2015개정교육 하에서는 모든 교과 자체가 기본 틀이요. 토론과
탐구활동을 하도록 교과서가 짜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학생들이요. 토론활동과 탐구활동과 여기서 파생하는 보고서와
발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1학년

학생들의 교과세특을 보면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주제발표활동을 합니다. 이전까지 주제발표활동은요. 대부분

상위권 학생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제발표활동
같은 경우는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생 스스로가 제가

하겠습니다라서 발표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요. 소위 얘기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학생들의
학생부가 좋아요. 그런데 2015개정교육 하에서는요. 물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발표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수행평가라든가 수업 자체가 모든 학생들이 토론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게끔 짜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정도, 학기당 한 번 정도는요. 발표로 수업을 하게 돼요. 발표를

하게 되니까 교과세특을 적어주게 되겠죠. 당연히 교과세특에
질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대학들은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이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보다 상향
평준화가 평가하기 힘들어요. 전체적인 발전을 봐서는 상향

평준화가 좋은데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대학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했었던 학생부의 상향평등.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학생들과의 학생부 격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SKY캐슬의 영향 얘기를 했었습니다. SKY캐슬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어찌 됐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진정성의 경쟁으로 갑니다. 대학들은 학생부를 100%
신뢰한다는 전제에 뽑아요. 그리고 많은 학교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저 특정한 학교 다니기 때문에 학종에서
불리해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다 생각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요. 많은
학교들이 잘하는 학교를 벤처마킹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예전에는 학종이 뭐예요라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학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강의가 많아요. 그렇죠? 컨설팅도
많이 받고 학교 내에서도 설명회를 통해서 학종이 이러이러한

전형이고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학기 초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학종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상향 평준화된 학생부

세상에서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차별화 있는 학생부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별화가 있는 학생부는요. 외부에서 컨설팅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설계하고 아무리 컨설팅에서

짜준 스케줄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진정성이 없고 학생이 하지
않으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설계하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만 상향 평준화되는 학생부
시대에서 차별화되고 이 학생부가 학생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대학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학생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학종의 서류.

고2,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학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단계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현 고1부터는

이 서류에서 교사 추천서가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학생부와
자소서. 그런데 문제는 학생부도 글자수가 줄고요. 자기소개서도

글자수가 줄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은 1단계 서류
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와 비교과
균형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예전에는 교과 따로 비교과 따로

갔어요. 그 옛날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얘를 메인으로 삼았죠.

그리고 비교과 전형이 학종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쪽을 메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개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둘 다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넘어갔었던 초창기 단계에서는 교과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점차 대학들이 학종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종에 대한 평가 경험이 쌓여갑니다. 벌써 학종이
10년이 됐거든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대학교들도요.

자신만의 평가 방법을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의
학생부를 평가할 때 내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지죠. 1.8은 붙고 1.9는
떨어져. 이게 학생부 교과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에요.

간혹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 3.5인데 어느 대학 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경희대학교의 합격자 점수 분포예요. 교과는요. 여기서 딱
끊기죠. 학과별로 1.5, 1.4, 1.3이라는 커트라인이 존재해요.

존재하기 때문에 저 1.6인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가 딱 판단
나옵니다. 그런데 학종은 보시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로 가요? range로 가요. 합격 점수 범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1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을 수도 있어요.

X라고 돼 있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 뒤에
7등급 학생 중에서 대부분이 X긴 하지만 합격자도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4, 5등급에서도 굉장히
합격자가 많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7등급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4, 5등급이요. 간혹 일반고
학생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3등급인 데도요.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경희대에 합격을 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의 내신이요. 학종의 지원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신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유리한 거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이 여러분의 역량을 정말로
폭넓게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드러난다면 충분히 3점대 내신이지만 4점대 내신이지만
경희대학교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학종에서 교과 내신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커트라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만 존재한다? 범위만 존재한다. 당연히

이 범위에만 드는 친구 물론 4, 5, 6등급은 좀 힘들긴 하죠.
일반고에서는, 이 일반고인데 4, 5, 6등급 학생이 붙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른 활동 자체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학생들이겠죠. 그런데 보통 3등급이 보통 많이

지원하니까 일반고에서는 2, 3등급 지원하니까 이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신을 최우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이 교과와 비교과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독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연결시켜줘야 돼요.
예전에 독서가 있습니다. 예전에 독서밖에 교과, 비교과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점차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창체 활동 자체가 교과와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벽 자체가 굉장히 엷어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하는 통로가

무수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는요. 학교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벽을 부수고 들어가서 문과

창문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야지만 학종에서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개별화시켜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날로 상향 평준화되는 학종 스펙 세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화와 차별화를 해야지만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학종 여러분 대세입니다. 대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1이라면 학종을요. 기본으로 깔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논술 전형이죠. 제가 뭐라고 썼어요? Dream
Come True, s가 빠지긴 했는데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 꿈은

이루어진다고 썼을까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이요. 생각보다

많다고 했잖아요. 인서울에서 12.4%입니다. 물론 전국에서 3.5%
적긴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15개 대학 평균을 내면 12.4%예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을 논술 전형으로 뽑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진짜 많이 해요. 논술 자체가 내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능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이다 보니까 교과 내신도 안 좋고

모의고사 성적도 안 좋은 애들. 그런데 인서울 하고 싶은
아이들. 다 뭘 쓸까요? 논술을 씁니다. 그리고 보면 합격수기를

보면 내신 6등급인데 고대 붙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간혹,
웃기죠? 내신 6등급인데 한양대 붙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야. 아주 특이한 사항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돼요. 당연히

경쟁률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으니까 당연히 합격률은
떨어지겠죠. 경쟁률이에요. 대학교 경쟁률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학과별 경쟁률 가면 더 높은 데가 많아요. 그렇죠? 연대
57:1입니다. 서강대 무려 85:1이에요. 성균관대 52:1이고요.

한양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데가 최저가 없는 데거든요.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들은요. 정말로

미어터집니다.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모든 학생이 다 지원
가능하잖아요. 한양대 보세요. 정말 높은 대학이잖아요. 80:1까지

오릅니다. 수능최저가 없어서 그래요. 시립대 52:1, 건국대 43:1,
그런데 올해부터 건국대는 최저가 있어요. 광운대 40:1입니다.

엄청나죠. 논술 전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학의 인기 학과로
보면 세 자릿수 나옵니다. 100:1 넘어요. Top10이 다 100:1

넘거든요. 서울에서 인기가 많은 논술 전형 학과를 보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성공 가능성이 낮아요. 논술의 평가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논술은요. 교과 내신을 깝니다. 기본 점수가

주어져요. 그다음에 논술로 점수를 채점하죠. 여기에 만약에
수능최저가 있으면 굉장히 커다란 위력을 발휘합니다. 교과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웃긴 게요. 교과 내신이 들어가요.
내신에서 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런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점수차를 보면요. 그렇게 안 큽니다. 점수차가 있다 하더라도
논술 채점 항목 하나만 더 맞으면요. 뒤집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신은 어때요? 무력화된 전형입니다. 논술은 물론 6등급부터는
굉장히 확 넓힙니다. 100점 정도 차이를 내요. 5등급과 6등급

정도는요. 그런데 5등급까지는 거의 이제,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은 무력화되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논술, 단순 글쓰기 아닙니다. 대학별로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채점 기준이 다 있어요. 당연히 키워드

평가입니다. 대학들이 글을 써나갈 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정도, 이런 개념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런 개념이나 이런 어휘가 없으면 감점으로
갑니다. 수많은 대학들이 키워드 평가 진행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인문계냐, 인문계 내에서도
어문계열이냐, 상경계열이냐 그리고 자연계열이냐 나눠집니다.

대학 문제가 다 달라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수리 논술 보는
데도 있고요. 과학 논술 보는 데도 있고요. 두 개 다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 자체도요. 단순하게 요약형도
있고요. 말 그대로 논점을 파악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펴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논술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서 발표하는

선행학습영향평가서인가? 그게 있거든요.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보셔가지고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의 논술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수능최저인데 수능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가

심해요. 더군다나 수능최저는요. 실질 경쟁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수능최저가 넘지 못하면

탈락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최저를 넘는 학생들끼리 경쟁률을 또

해보면요. 반 토막이 납니다. 보통, 이게 보통 수능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교과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논술 같은 경우는 워낙 허수 지원이 많습니다.

100:1이라 하더라도요. 논술 만약에 최저가 있는 전형인데
50:1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수능최저를

못 맞춥니다. 심지어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만
수능최저를 맞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같은 경우

경쟁률이 1/3토막이 나는 거죠. 그만큼 수능을 좀 공부하면
경쟁률에 있어서 즉 바꿔 얘기하자면 합격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죠. 수능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수능이 점수가 좀

나오면 수능최저가 있는 전형을 써주는 게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최저가 있는

대학과 수능최저가 없는 대학이 좀 반반 정도 나눠져요. 특히
이제 웬만하면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최저를 둡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수능최저가 없는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아마 이런 경향 자체는 쭉 갈 것 같아요.

쏠림 현상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만약에 보겠다라는 친구들은 자기의 목표가 수능최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뭐가
좋을까요? 있는 전형이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이거는요. 진짜 답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자기가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잘 몰라요. 논술 자체는요.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아, 내가 잘 썼구나. 내가 못 썼구나가 판별 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굉장히 힘든 전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1학년 때부터 학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은

독서입니다. 학원에서는요. 보통 가르쳐주는 건 스킬이죠.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내용을 채우는 건 누가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내용은요. 학원이라든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머릿속에다가

배경지식을 꽉꽉 채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거 독서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요즘은요. 문해력, 문장해석력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제시문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각 제시문이 이야기하는 차이점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늘려야 돼요. 그리고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요. 평상시에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각 대학에서 발행하는
선행학습영향평가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수능 공부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학종을 대세로 이루고 교육과정 자체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제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도 버리는

활동이 아닌 거죠. 그대로 대입 경쟁력을 키워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요. 평상시에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00이죠. 그런데 정시 전형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에이, 정시 점수대로 가는 거잖아요. 교과 전형보다

훨씬 빡세게 이해해야 되는 게 정시 전형이에요. 모든 전형
중의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교과 전형이 제일 쉽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돌리면 나옵니다. 대학별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수능은요.

엄청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정시 30%
이상 이게 뭘까요? 일단 인서울은요. 27%입니다. 수능 이월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은 19.9%지만 수시 이월에 3%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대학 공통적으로 3%가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서울권에 15개
대학이 평균 27%인데 실질 정시 비율은 3% 더해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요. 서울 시내 100% 수능에서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서울대 21%, 고대가 좀 적죠. 16%, 연대

높아요. 32%입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근 40%까지
뽑습니다. 인서울권 내 정시 전형이 그렇게 극히 적은 건

아니에요. 교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거의
비슷해요. 논술의 한 거의 3배까지 오르죠. No.2 전형입니다.

인서울 내에서 정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진짜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영어 절대평가. 이거 미칩니다.

엄청나게 미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어가요. 국어, 수학,
탐구처럼 딱딱딱 나오죠. 표준점수 나오고 등급 나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어가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중요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입시학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회 내에서도 중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인데 이 영어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제치고 첫 번째로 절대평가가 됩니다.

좀 논란이 많았어요. 이때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90점만
맞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80점만 맞으면 2등급이 나와요. 이게

또 이제 비교해보면 1등급이 4%고 2등급이 7% 가잖아요. 작년
수능 굉장히 불수능이었어요. 정말 어려웠다라고 평가했는데

불수능이었던 영어에서 1등급이 무려 5.2%입니다. 기존에
상대평가에서 1등급 4%보다 많아요. 불수능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2등급은 19%입니다. 불수능이었는데 19%가 2등급을
받았어요. 원래 7%가 나와야 되거든요. 7%의 거의 2배 이상이

2등급을 받습니다. 불수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어떨까요? 정시 반영할 때 힘들어요. 정시는 기본 백분위거나

표준점수로 막 잘게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등급은 쪼갤 수가
없어요. 너무 등급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정시의 반영하는 기준을 다
제각각입니다. 서울대학교 좀 심해요. 서울대는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9등급 받고도 서울대학교 합격한다. 가능해요. 이론상
1등급과 9등급 차이가요. 5점이 채 나지가 않습니다. 5점은요.

수학 2문제만 더 맞히면 되는 거예요. 변별도가 없죠. 서울대
1등급과 점수차가 0.5점에 불과합니다. 고대 볼까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1점이에요. 2등급과 3등급 차이가요. 3점입니다.
그래서 고대 정시 합격생들 가운데 2등급 밑으로 가는 학생이

80%입니다. 물론 대다수 2등급이겠죠. 심지어 3등급 밑으로 간
학생이 30%나 돼요. 말이 됩니까? 고대 수준의 학교인데요.

3등급을 받고도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30%가 나옵니다. 영어
3등급은 국어 3등급, 사회 3등급, 수학 3등급과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붙어요.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는 조금 크죠. 5점, 12점 퍼지니까

성균관대는 적습니다. 1점, 2점, 7점이에요. 이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컸던 대학 중의 하나인데 줄였어요. 다른 대학

볼까요? 경희대 1등급과 2등급 차이 8점입니다. 그나마 좀 크죠.
인하대 5점 차이밖에 안 나요. 숭실대 4점 차이입니다. 동국대

2점 차이고요. 숙명여대 5점 차이밖에 안 나요. 영어 반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시 반영할 때 영어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영어 절대평가 굉장히 이것도 변수가
커집니다. 그다음에 더 큰 게 뭐냐면 변환표준점수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탐구 과목에 적용되는데 탐구 보통 이제 성적표에
보면 표준점수라고 나와요. 이 표준점수가 뭐냐면요. 자기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얼마 정도 위에 있느냐를
나타낸 게 표준점수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문제가

어려워요. 시험 그 교과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평균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잘 봤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거리 폭이

넓어지죠. 어려운 교과인데 잘 보면 표준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선택과목이 아니니까 그런데 탐구 교과는 다르죠. 탐구 교과는
뭐가 달라져요? 선택 교과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선택한 교과에

따라서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표준점수가 달라집니다.
불이익이죠. 나는 경제 선택했는데 하나 틀렸어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표준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활과 윤리

보세요. 나는 만점 받았어요. 1등급 받았어요. 쉽죠. 표준점수가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학들이 백분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게 변환표준점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려웠던 교과인데 백분위가 낮은
친구들 있죠. 표준점수는 높은데 이거를 변환표준점수로

바꾸면요. 표준점수가 떨어져요. 백분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쉬웠던 과목 있죠.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 자기 1등급이야.

백분위 높겠죠. 표준점수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변환표준점수로 바뀌면요. 변환표준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과 간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 상쇄돼버립니다. 문제는 이게 대학마다 달라요.

영어처럼요. 그리고 이 변환표준점수 자체가 영어는요. 학기
초에 나옵니다. 학기 초에 입시요강에 나와요. 그런데

변환표준점수는 수능 성적이 나와야지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시 상담을 받아야

되고요. 정시를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수능 성적이 나오고 바로
정시를 지원하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변환표준점수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봐야 돼요. 변수가 크죠. 왜?
대학마다 다 달라요. 표준점수 봅시다. 세계지리 63 나올 수도

있고요. 동아시아 65 나올 수도 있고 경제 67 나올 수도 있어요.
세계지리와 경제의 표준편차가 무려 4점이나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변환표준으로 바뀌면요. 어떻게 돼요? 바뀌죠. 얘가 받은
백분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뭡니까?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마다
변환의 폭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시는요. 정말 합격자 폭이 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0.01점 차로
합격의 등락이 바뀌는 거예요. 4점 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1점

차 엄청날 수도 있어요. 밑에 하위권 커트라인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수가 크죠. 더군다나

변환표준점수는 늦게 나옵니다. 굉장히 비중이 커져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선택교과에 따른 유불리인데 그나마 지금

2, 3학년은 이 선택교과가 탐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학년은요.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일단 2학년까지는요. 사탐

2개, 과탐 2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1학년은 뭐가 되느냐?
사탐과 과탐 구별 없이 2개 선택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공계 애들이 문과 애들보다 우수한 애들이 많잖아요.
우수했던 이공계 애들이 이전에는요. 과탐 2개만 봤어요. 인문계

애들은 사탐 2개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는 풀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인문계 애들이 조금 유리했어요.

등급 따기에는 그런데 이게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내가 비록
이공계를 지원하지만 하나는 과학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쉬운

사탐으로 할 수 있어요. 인문계 애들한테 누가 들어옵니까?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뭐가 불리해집니까?

인문계 아이들이 불리해집니다. 탐구 영역에서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변수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게 탐구

과목에서만 있으면 그나마 낫죠.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수능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공통이었었던 수학과 국어

내에서 선택교과가 생겨버립니다. 공통으로 시험 보는 문제는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 공통으로 봐요. 그런데 선택교과가

생깁니다.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언어와 매체는 기본적으로 문법이거든요. 화법과 작문이 언어와

매체보다 조금 쉬워요. 당연히 어느 쪽으로 몰릴까요? 화법과
작문으로 몰리겠죠. 그런데 언어와 매체가 어렵잖아요. 언어와

매체를 만약에 잘 본다면 뭐가 높아지죠? 표준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표준점수가 높아지면 대학들은 뭘 쓴다

그랬어요? 변환표준점수를 만들어요. 이전까지 변환표준점수는
탐구 과목에만 만들었는데 이제 대학들은요. 국어와 수학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변환표준점수를 언제 나온다고요?
변환표준점수가요? 수능 점수가 나와야지 나옵니다. 수능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 정시 상담이요. 굉장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학은 더 심해요. 수학은요. 선택교과가 하나, 둘, 셋.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라고 3개가 생깁니다. 확률과
통계가 제일 쉽겠죠. 대부분의 문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쓸 거예요. 이공계 애들은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를
쓰겠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 수학

교과 선택교과에 대해서 제한점을 안 걸어둬요. 이공계
대학인데 수학 선택교과를 확률과 통계를 해도 된대요. 이런

대학이 나오면요.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려운데, 훨씬 어려운데 확률과 통계로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공계 애들이 문과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도 수학 가 보는 아이들이 수학 나로 들어가면

인문계 상위권 애들 손해를 보거든요. 이게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졌고 이거를 수능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선택교과의 수가 많아졌어요. 선택교과의 수가
많다라는 건요.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들은 이를
보정해줄 수 있는 변환표준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시 상담은 점점점 늦게 되고요.
변수는요. 정말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변수는요.

수능에서는 생각보다 없었어요. 보통 점수는 경쟁률, 전형 체제
내에서의 변수였죠. 학생부 기재요령 이런 거였는데 이제

수능에서도 변수가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가짓수가 정말로
많아졌고요. 감안해야 될 가짓수가 지금도 정시 상담

힘들거든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전년도 대학에서 나왔었던 정시 합격 점수가 올해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변환표준점수가 바뀌는데.
더군다나 변환표준점수가 탐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어와

수학에도 들어가는 게 높은데요. 전년도 진짜 합격 점수는요.
그야말로 올해 적용이 안 되는 점수로 갑니다. 정말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자, 합격 점수가요. 정말 촘촘합니다. 이게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예전에는요. 이게 정말로 합격자 점수

폭을 보면 다다다닥 있어요. 다다닥 있긴 한데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점수대가 분포했어요.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작년부터 뭐가 들어가요? 영어 절대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영어가 이전에는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서 줄 세우기였잖아요. 그런데 영어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막 쪼개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절대평가

돼버리니까 점수가 어떻게 돼요?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가
뭉텅이로 갑니다.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시 합격자 점수를 보면
예전에는 다다다닥 있었는데 요즘은 둥 둥 둥 돼버립니다.

둥둥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중간에 이 점수대 폭이 사라지게
돼요. 합격자 폭의 점수대가 예전에는 30개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10개로 확 줄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밑에 점수
폭이 정말로 적다는 거예요. 영어로 변별도가 없어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버립니까? 선택교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변수가 진짜 많아져요. 진짜 한 문제 한 문제로

대학 극간이 바뀝니다. 이게 교과 내신 학종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극간이 크잖아요. 이게 합격되는 어떤 아이들의

자료가 커요. 격차가 그런데 정시는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KY,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있잖아요. 이 대학들의 격차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3문제 정도면 대학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 3문제가 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실수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변수가 많으니까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재수생의 위력이죠. 재학생에게는 정말로 재앙과도 같은
존재가요. 수능 난이도가 아니에요. 바로 N수생이라고 얘기하는

재수생입니다. 자, 작년 거 볼게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고3 재학생은 4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졸업생 가운데 수능에

응시한 인원이 13만 명입니다. 30%가 유입되잖아요. 30%가
유입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들어오는 재수생이요. 잘하는

재수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의 정시

합격생들 가운데 N수생, 졸업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포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소위 얘기하는 최상위권 대학인 고대와
연대 비중 보십시오. 정시 합격생 중에 N수생,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의 비율이 무려 64.4%, 연대는 58.3%입니다. 고3
재학생들이 고대 가려면요. 40%가 안 돼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재학생, 고3은 어디
학생입니까? 뻔하죠. 자사고, 특목고, 특정 지역 학생입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정시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왜

유리해요? 1년 내내 수능에 올인하잖아요. 고3 얼마나
바쁩니까? 메인이 학종이니까 내신도 공부해야죠. 학교 활동도

해야죠. 수능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수생은 어때요?
학생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내신 다 끝났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수능만 올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애들이죠. 멘탈이 겁나 셉니다. 여기에 자사고, 특목고,

특정 지역 학생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게 수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커요. 그러니까 재학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학생 입장에서는 정시 전형이 수시보다, 수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정시야말로 복잡함의 끝판왕입니다.

학교에서는요. 프로그램 돌리지 못하면 못해요. 일선,
사설에서는요. 프로그램 못 돌리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고1부터는 뭐가 많아져요?
변수가 진짜 많아져요. 선택 과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변환표준점수가 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능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의 상담은요. 되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점수가 나오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이 얼마 안 되는
며칠 사이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시가요. 수시보다 소위

얘기하는 빵꾸 학과가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점수대 학생이 들어가. 왜냐하면 엄청나게 눈치 경쟁이

심하거든요. 진짜 버티고 버티고 있다가 그나마 경쟁률 적은 데
넣습니다. 옛날처럼 되는 거죠. 옛날에 보통 엄마들, 아빠들 입시

볼 때 그랬거든요. 정말로 마감 한 시간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적은 데 넣어요. 정시가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힘들어. 그래서 웬만하면 고등학교에서 그나마 편하게
가는 게 뭡니까? 학종입니다. 수능은요. 정말로 하루만 보잖아요.

하루만 보고 변수가 커요. 여기에 각종 변수가 더 생겼습니다.
여기에 경쟁 상대가 누가 들어와요? 막강 N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정시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할애를 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수시가 교과와 학종과 논술로 나눠지고 각종 비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보통 우리는 인서울권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각 전형 간 특징이 뭔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형을 준비할 수가 있게 돼요.

특히 1학년 때부터 수능에 올인하게 되는 어떤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시고요. 그나마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형 별 차이와 복잡하다고

느껴졌었던 대학 입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물론 이제 정시, 생각보다 쉬웠던 정시가 알고 봤더니 엄청

복잡한 전형이다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2강에는요. 이게 전형별로도 약간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올해야말로 1학년, 2학년, 3학년의
입시 체계가 완전히 다른 첫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